

실속 재테크

달라진 세무·금융 환경

광주·전남서 미분양 APT 사면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광주·전남에서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 되고, 퇴직연금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자녀들 교육비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2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비 소득공제에 교육비용 추가=학부모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교육구입 비용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가 있다.

▲퇴직연금 예금보호=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돼 금융기관 파산 때 근로자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10월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보낼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10월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시해 증권사 자산관리 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타 금융기관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카드사 불건전 영업 금지=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쁨값이나 늘어놓는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여신전문회사가 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우건설은 좋은 회사 매각 잘 되게 도와달라”

금호 박삼구회장 밝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대우건설은 좋은 회사다. (매각이 잘 될 수도 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날관계자가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수행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회장은 대우건설을 3년 만에 재매각 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비추면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질문에 대답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과 매각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산은과 잘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지금은 많은 말을 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을 아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대우건설 지분 공개 매각 방식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FI) 지분 39%와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은 경영권 이양이 확실한 ‘50%+1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대우건설 매각 이후 대한항공 추가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채권자 측인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이날 “대우건설에 대해 공개 매각과 사모주식펀드(PEF)를 통해 인수해 주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추진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논의해 금호 측에 주고 한 가지 방안을 최종 선택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호가 대우건설 매각에 성공한다면 대한항공을 내다 팔 필요는 없으나 나머지 재무약정을 맺는 내용들은 이행해야 한다”며 “대우건설 매각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재무약정 내용도 일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촉촉한 바캉스 떠나세요 스킨 케어 전문 브랜드 비오템은 1월부터 한 달간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바캉스 용품을 특별 시은품으로 증정하는 ‘비오템과 함께 떠나는 촉촉한 바캉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새얼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지원에 최선”

유근성 광주조달청장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유근성(55)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돕고 영산강 살리기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천 출신인 유 청장은 충천고와 육사를 졸업하고 1982년 조달청에 입사한 뒤 부청 민원실장, 뉴욕총영사관 부영사, 강원조달청장, 시카고총영사관 영사, 공보담당관, 품질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내년 국내주식에 6조9천억원 투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의 내년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채권투자 비중은 축소된다. 대신 올해 운용계획은 국내주식과 대체투자 비중 축소, 국내 채권 비중 확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200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전제희 복지부장관)를 열고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투

자 다변화 추세에 맞춰 주식 비중은 18.8%에서 21.6%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5.0%에서 6.4%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반해 채권은 76.1%에서 71.7%로 낮아진다.

2010년 한해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수입규모는 총 82조 1천216억원으로 연금급여 등에 10조 1천718억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71조 9천498억원이 유자금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이 중 기회수익을 제외한 신규자금 28조원은 국내주식에 6조9천억원, 해외주식에 4조9천억원, 국내채권에 9조2천억원이 각각 배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Large banner advertisement for travel agencies (Gumpu, Gwangju, Jeju) with scenic background images and promotional text.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insurance, and local business promotions.